

전도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

작성일: 2011. 10. 23 (일) 새벽 4시

작성자: 천란 목사

[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쓰고 난 후 선교에 관한 선생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.
말씀을 다 읽은 후 주님께서 심정을 전하시고자 하는 감동을 받아 급히 적었고, 이어서 선생님께서 생명사업에 전진하는 섭리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
]

* 예수님 말씀 *

선생이 심정으로 외치지 않느냐?
그 소리 알아듣는 자 얼마 없다.
너, 얼마나 알아듣느냐.
그게 어디서 표가 나는지 아느냐?
너 얼마나 행하는지 보면 다 알 수 있다.
선생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깨닫는지는
실적 보고 행한 거 보면 알 수 있다.

* 선생님 말씀 *

요즘 목회자들도 내 말에 걸리는 자들 많다.
내가 일러주고 말해 주고 코치해 줬는데
굽떠서 안 하는 자가 많고
내 말귀 못 알아듣는 자가 반,
자기 식대로 하는 자가 반이더냐.
결국 내 말귀, 내 심정 모르니
내 말귀 알아듣고 하는 자와 할 수밖에 없다.
자꾸 부흥 강사 찾고, 부흥 강사도 나만 찾으니
같이 할 수밖에 없고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.
나 간절히 부르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외치고 일러주
겠느냐.

내 심정 통역하며 내 말 알아듣고 하는 데에
내가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길이 가는 것이다.

유능한 자는 그런 자다.
하늘 방향 알고 그대로 따라
실행이 되건 안 되건 밀어붙이는 자다.
주님도 그런 자와 함께하신다.
왜?
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니

주님의 눈길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.
환경 탓, 자기 상황 탓하는 자가 많다.

내가 왜 이리 말하는지 아느냐?
말 안 하면 모르니까.
나 오해하고 불신하고
자기 힘들게만 한다고 하는데
오죽이야 내 마음만 하겠냐.
주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
내가 주님 외면하고 너희만 맞춰 할 수 있겠느냐.
더디게 섭리역사 펴면 또 신약 때 꼴 나는 것이다.

예수님 시대 때 어떠했나.
주님만 외치지,
주님 복음 외칠 당세 때 함께 외쳐 주고
주님 막아줄 방패자 역할 할 자도 없고
주님의 확성기 역할 할 자도 없이
주님 외로이 구원역사 펴 나가셨다.
때 늦어 주님 잃고 성령 받아 외치지 말고.
그럼 신약역사 반복하는 거밖에 안 되고
그 차원 구원역사밖에 못 이룬다.

주님 급하시다고 재촉하는데
내가 하늘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날이 새는데
시간 가는 줄 모르고
오늘이 언제 지나간 지도 모르게 하고 있다.
역사를 뵈다 하는 자들이
이 역사가 마치 하루인 것마냥 뛰어야 실감한다.
오늘 하루 간 거 같은데 그게 벌써 50년이다.
내 어릴 때가 어제 같은데
벌써 시간이 이리도 가고
주님은 더 재촉하시니
하루가 100년인 것만 같이 느껴진다.
정신없어도 주님이 코치하시고 이끄시니 할 수 있는
것이다.

내 말에 공감하고 이해가는 자가
내가 원하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다.
책만 들여다보지 말고 외치고 전해라.
뛰어 다녀라.
뛰고 날고 굴러도 모자를 판이다.

교역자들은 사명자들 배치 잘 시키고
위치에 맞게 지도자들 움직이게 해 줘야 한다.

너무 하나에만 국한시켜서도 안 되고
재능과 달란트 보고 주님께 허락받고 구상 받으며
조직해서 해야 한다.

지금은 본인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다.
그만큼 역사의 때가 급하고
주님도 얼마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.

주님의 마음 떠나는 것 시간문제다.
주님이 얼마나 빠른 구름 타시는데.
자기가 그 구름 못 태워 드리면 주님 금방 옮겨가신다.

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정신 차린다.
주님은 어떤 구름 타시냐.
때마다 상황 제재 받지 않고 움직일 자 데려다 쓰신다.

그러니 자기 주관적 사고 있을수록
더디고 힘들게 섭리길 가는 것이다.
왜?

주님이 자꾸 옮겨가시니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.
주님 놓치면 누가 손해냐.
주님 아쉬워도 역사가 급하니 그리 행하시는 것이다.
나도 주님 늘 모시고 가려니 1분 1초가 전쟁이다.
주님과 시간 전쟁이다.
시간 전쟁에서 시간 놓치면 곧 주님 놓치는 것.
생명길 다시 내서 주님 모시려면 나만 고생이다.
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.
능력 있게 해야 한다.
못해도 하려고 도전해라.
유능한 자, 그런 자 뽑아 쓸 것이다.

다 잘할 줄 알아야 한다.
외치는 거 겁내지 말고
본인이 먼저 성령 받고 연단 받고 주님께 간구해라.
주님 사용해 달라고 말이다.
주님 기다리신다.
목이 타게 기다리신다.
주님 사랑 아니냐.
주님의 몸 아니냐.
주님이 너 사랑하신다 한다.
주님 소원 이뤄 드려야 하지 않느냐.
우리 모두 해야 주님 기뻐하신다.
나만 보고 만족하지 않으신다.
왜?
우리는 섭리 인생 하나이지 않느냐.

모두가 잘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.
주님이 함께하실 때 해야 쉽고 재미있다.
주님 떠나시면 그야말로 고생길이다.

내가 전도단도 보내고 교육해 주는 것
전체가 불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.
주님 뭘 원하는지 알면 그 그룹에 속하고 싶을 것이다.

주님 지금 전도하라 하신다.
사랑 불타 전도 불타 역사 이루며 가자신다.

역사 우리만 이루다 말 것이냐.
지금 주님 가시면 우리 눈에 피눈물,
주님 눈에 피눈물 누가 위로하냐.

오직 생명으로 위로한다.
우리도 웃고 주님도 기쁘게 해 드려야지.
오직 생명이다.

네 생명 귀한 줄로 아느냐.
주님의 생명도 모두 귀하다.
귀한 자가 귀한 자 찾는다.
주님이 너 귀하다 하시니 네게 말한다.
사랑하고 꽃피니 결실 맺자.

순서다.
순서에 맞게 하자.
꽃 피우고 열매 못 맺으면 결국 꽃만 지다 만다.
지는 꽃 말고 결실 맺자.
한국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, 호주, 아시아, 남미
모두 택한 자 많다.
불러 모으자.

주님이 함께하신단다.
외쳐 줄 자, 전도 나갈 자, 관리할 자,
강의할 자, 지원해 줄 자, 기도해 줄 자,
먹고 입혀 줄 자, 친구가 되어 줄 자, 같이 놀아 줄 자,
개성에 맞게 조직해서 세우고
한 사람도 놀리지 말고
주님 생명구원 사업에 사용하자.
너희가 주님의 몸이다. 입술이다. 심정이다.
절대 잊지 말고 살아라.
나도 늘 너희와 함께하니 나와 의논하고 행하자.
안녕. 선생이다.
사랑한다.
전해 줘.